

山林經營會報

發行人：權 五 振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清涼里洞

207 山林廳林業研究院 內

電 話：961-2721 963-4306

本會 定期總會 消息

새 會長에 權五振氏 選任

副 會 長：金文根，李泰聖，趙大奎，崔寄泳氏 留任

新任副會長：徐基洪，李圭鉉，李龍鎬，林東弼，金奎宗，諸氏로 補強



世宗大王紀念館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있다.

本會는 지난 2月24日 世宗大王紀念館에서 '89定期總會를 開催하고 새로운 會長團을 選出하였는데 會長에 權五振 西海開發株 代表理事를 選任하였다.

副會長에는 金文根, 李泰聖, 趙大奎, 崔寄泳氏가 留任되고 徐基洪, 李圭鉉, 李龍鎬, 林東弼, 金奎宗諸氏가 副會長에 選任되었다.

이날의 會長團 選出은 지난 2月16日 定期理事會에서 會長團 全員이 一括 辭任意思를 밝힘으로서 總會에서 10名의 전형위원에 의하여 選出된 것인데 앞으로 金年1年間 前任 會長의 殘餘任期동안 봉사하게 된다.

新任 會長인 權五振氏는 서울농대임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전문 林業人으로서 鮮京그룹 계열사인 西海開發(株) 代表理事로 在職中이다. 새로이 補强된 副會長들도 모두 平生을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模範篤林家들로서 金후 協會發展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이날 總會에서는 豫算案審議 등 定期案件 以外에도 현재 副會長 수를 5인이내에서 10인 이내로, 각도 지부장선출을 민주화방식에 따라 도지부자체에서 선출토록 하고, 분과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별항) 그밖에도 전임 韓榮錫會長을 고문으로 추대키로 하고 총회를 모두 마쳤다.

本會 事務室 移轉 山林廳 林業研究院 構內로

본회는 지난 3月16日 事務室을 청량리 흥릉에 있는 임업연구원 구내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연간 3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절감하게 되어 영세한 협회운영에 크게 도움이 됨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로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무실 이전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당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 우편번호 : 130-012
- 주 소 : 동대문구 청량리2동 207 임업연구원 내
- 전 화 : 963-4306
961-2721

무심코 버린불씨, 금수강산 재가된다.

나무심어 가꾼정성, 산불막아 보존하자

※ 사무실 이전을 축하해주시고 화분을 보내주신 조림국장, 본회 김문근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就 任 辭



新任 權五振 會長

會員여러분, 그리고 全國의 山主와 林業人여러분!

本人이 지난 2월에 우리協會定期總會에서 本意아니게 會長으로 被選됨에 따라 紙上을 통하여 감히 人事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所任을 맡게 되고 훌륭하신 많은 林業先輩님들이 계심에도 미력한 저에게 所任을 맡겨주심에 따라 보다 더 큰 부담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政府의 山地資源化 政策에 발맞추어 山林을 所得源으로 造成하고 會員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努力할것인가를 研究하고 任期間 最善을 다하고자 합니다만 이는 會長團이나 몇사람의 任員陣

만으로 解決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權益옹호와 協會發展을 위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難題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당면한 문제점들은 山地投機抑制 對策에 따른 會員 意思를 對政府에 적극 반영하는 문제, 相續稅 증여세 양도소득세등 산림세제의 개선, 造林貸付 國有林에 대한 당초계약대로 양여 받을 수 있는 權利回復, 國公立公園등 法定施業制限林에 대한 補償문제, 木材輸入關稅 附加金制 實施로 基金을 마련하여 山主에 환원하는 제도마련등 실로 難題들이 山積해 있습니다.

이들 難題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會員여러분들의 단합된 결집력과 인내로서 타협하고 홍보하며 우리들의 의사가 정책당국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잔여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나 會員여러분과 林業先輩, 同志여러분의 배전에 성원과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것이므로 적극동참하시어 협회 발전은 물론 임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9. 3.

회장 權 五 振 拜

<회 원 공 지 사 항>

임시총회개최공고

- 일 시 : 1989年3月28日 14:00
- 장 소 : 임업연구원 회의실
- 안 건 : ○ 협회명칭 변경에 관한 정관개정안 심의
○ 대 정부 건의문 채택

위와 같이 공고함.

1989. 3. 회 장

離任辭

前會長 韓 榮 錫

1973年1月 전국 篤林家들은 국토 山林經營의 중요성과 사명감에 입각한 철학적 精神性 확립과 경제적 經營技術의 탐구·會員의 共同福利 추구하고 敦睦團合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韓國造林家協會를 창설하였습니다.

1986年2월에 協會는 山林經營발전을 위하여 協會명칭을 韓國山林經營者協會로 변경하였으나 산림경영이란 말이 아직 국민의식에 정착되지 않았음을 감안, 보다 현실감각이 뚜렷한 篤林家協會로 명칭을 개정하여 탄력성있는 업무추진을 도모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協會 역사가운데 본인은 천학비재임에도 불구하고 초대會長 5,6,7,8대 會長을 역임해 왔으나 특기할 만한 업적을 올리지 못하였음을 못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國土山林 經營觀으로서 山林의 盛衰는 곧 國力의 盛衰에 직결되므로 山林經營은 國家的 大業이 되어야 하며 國家는 山林投資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찍부터 國土山林의 충실은 國土保全·水源涵養·林產資源確保·旱水風災害防止의 공익적 기능의 길을 일러왔으나 이를 현대적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國土山林은 生態의 본원이자 國民의 精神健康 經濟文化 발전의 근원이 되는 바이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不實山林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여 國力損耗가 너무나 큼니다.

뿐만아니라 人口超過密國이자 新興工業國으로 발전한 우리나라는 大氣汚染과 水質汚染마저 심화되어 감으로 山林의 충실없는 國民의 安息과 참된文化 先進國을 이룰 수 없으며 國民의 조급한 성품과 각박한 심성을 순화시킬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이러한 관념에서 國家重林政策을 간단없이 제기하며 國家林政의 行政一元화와 先進國에 따르는 國家大投資·林道開設과 林業機械化를 제창하여 왔으며, 會員들이 바라는 施業自律화와 民有林經營이 制度金融 長期性預金利率 정도가 확보될 수 있는 國家財政支援·山林地의 世襲林業과 財產權행사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相續·贈與·讓渡·地方稅等の 山林稅制개선·國家山林災害保險(共濟) 제도 창설·山林組合 민 주도의 生産者組合化·自然公園·廣域軍事保護地域의 施業自律화와 財政稅制支援의 혜택균점·造林貸付 國有林 無償讓與問題·기타 많은 문제의 해결제안을 하여왔습니다.

그리하여 政府와 社會의 인식의 도가 높아가 부분적 문제해결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대국적해결은 아직 담보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政府與黨에 林政改善策을 건의하여 '87大選에 選舉公約도 있었거니와 지금도 國家重林政策 建議案은 同黨 政策委員會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時局이 평온하지 못한 관계로 심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國家山林의 융성은 國家發展 民族隆興의 근본책이므로 與野의 政策異見이 있을 수 없

으며 時局이 안정되면 與野 政黨의 協議에 의한 國家重林政策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는 전력투구로 이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임 權五振會長은 林業을 전공한 분이요 山林經營일선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분으로 풍부한 경험과 경륜력이 높으므로 우리는 새 會長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고 會長團과 任員陣이 적극협력하여 國家重林政策을 실현시키면 우리는 신성한 國家奉仕를 보람과 희열을 만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신임會長の 건투를 빌며 장장한 세월속에 부족한 본인을 애호 성원하여 주신 全 會員에게 감사를 드리며 會員高堂에 榮光이 충만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植樹期間 맞아 “한그루 나무심기” 운동 전개

山林廳은 第44回 植木日을 앞두고 '89. 3.21 - 4.20 (1個月)을 植樹期間으로 設定, 總 221億원을 投入하여 34ha에 94百萬本の 나무를 심어 山地資源化를 促進해 나갈 計劃이다.

山林廳에 따르면 올봄 植樹期間에는 長期樹 28千ha, 速成樹 5千ha, 有實樹 1千ha등 總 34千ha에 94百萬 그루의 나무를 심게되며, 國費 88億, 地方費 56億, 融資 및 自力 77億등 總 221億원이 投入된다고 밝혔다.

山林廳에서는 이번 植樹期間에 솔잎혹파리 被害地등 不良林의 樹種更新에 중점을 두되, 특히 林業振興促進地域에 集中的으로 造林 (18千ha)할 計劃이며, 木材의 長期需要를 勘案하여 참나무, 자작나무등 有實 闊葉樹의 造林을 擴大하고 農山村 所得增大와 國土景觀을 造成할 並行한 造林을 推進키로 했다.

山林廳에서는 이번 植樹期間에 한그루 나무심기 運動을 展開, 全國民의 積極的인 參與를 誘導하여 快適한 生活環境과 豐饒로운 國土景觀을 造成하기 위해 國民 各者의 생활권에서

- 住民은 里, 洞, 마을, 家庭 單位로,
- 學生은 學生, 靑少年團體 單位로,
- 職場人은 機關, 團體, 會社 單位로,
- 軍人은 部隊 單位로 나무를 심고,
- 都市地域에서는 綠地帶, 施設物 周邊, 아파트, 家庭등을
- 農村地域에서는 마을권 空閑地, 農家周邊, 山地등을 對象으로 造林을 實施케 된다.

山林廳에서는 國民植樹 技術指導를 위해 各급 山林關係 機關에 792個所의 林業技術 相談席을 設置運營하며, 植樹 參與 主體別로 指導 擔當 山林 公務員을 指定配置 하는 한편, 5ha以上 所有 山主를 對象으로 山主教育을 중점 實施하여 造林成果를 거양토록 했다.

本會 定款一部改正

本會는 지난 2月24日 定期總會에서 부회장수를 늘리고 각 도지부장 선출을 종전의 하향식 방법에서 도지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도록 민주화시키고, 育林, 有實樹, 副產物등 분과회를 둘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일부를 개정하였다. 개정안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같다.

정 관 개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p>제10조(임원 및 임기) 2. 부회장 5인이내 3년</p>	<p>2. 부회장 10인이내 3년</p>	<p>제17조(분과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신설함에 따라 부회장 수를 증원 • 각도 지부장 선출은 도지부 자율적으로 우선 선출토록 민주화시키고 각도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 지부장이 없을 때만 현행대로 함.
<p>제11조(임원선출) 각도 지부장은 회장이 이사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제11조(임원선출) 각도지부장은 각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각지부 총회에서 선출한 지부장이 없을 때에는 회장이 당해도 이사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p>	<p>분과회 조직을 위한 근거마련</p>
<p>제17조(분과회) 신 설</p>	<p>제17조(분과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과회는 육림, 유실수, 부산물등 분과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분과회 구성은 회원의 희망에 따라 분류 구성한다. 4. 부회장은 분과회에서 선출한다. 	

현행	개정 (안)	개정 사유
<p>제 18 조 (회의 정족수) 단서 2 항 신설</p> <p>제 21 조 (이사회 부의사항) 7 항 신설</p>	<p>5. 분과회장은 분과회 간사를 지명하고 분과회 업무를 통괄하며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업무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p> <p>제 19 조 (회의 정족수)</p> <p>2. 일반회원의 참석도 대의원 정족수에 산입한다.</p> <p>제 22 조 (이사회 부의사항)</p> <p>1. 현행과 같음 2. " " 3. " " 4. " " 5. " " 6. " " 7.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주요사항</p>	<p>• 총회는 일반회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참석자는 전원 정족수에 산입하도록 한다.</p>

苗木展示 販賣場 開設

-- 3 月 18 日 부터 4 月 25 日 까지 --

山林廳은 國民植樹期間을 맞아 “全國民 한그루 나무 심기” 運動을 展開하는 한편, 苗木構入을 하고자 하는 國民의 便宜를 圖謀하기 위해, 山林組合系統에서 生産한 優良苗木을 全國 47 個 山林組合에서 저렴한 價格으로 展示 販賣키로 했다.

山林廳은 國民植樹期間을 맞아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심고 잘 가꾸어서 山地를 資源化하고 아름다운 도시, 豐饒로운 農村으로 가꾸기 위해, 3 月 18 日 부터 4 月 25 日 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苗木展示販賣場” 등 全國 47 個 山林組合에서 品質이 優秀한 苗木을 市中보다 20% - 30% 싼 價格으로 販賣하는 한편, 심는 方法과 기르는 要領등 技術相談도 해주기로 했다.

苗木展示販賣場에서 販賣하는 樹種은

山林樹種 (잣나무外 9種), 유실수 (대추나무外 9種), 관상수 (향나무外 33種), 其他 (잔디, 山林用 肥料) 등으로 서울의 境遇는 강남구 논현동 239番地 (電話 545-2804) 로 問議하고 地方에서는 郡 山林組合에 問議하면 된다.

- 林産物 主産團地 28 個所 指定開設키로 -

山林廳은 山林에서 短期所得을 올려 山林의 長期投資에서 오는 山林經營의 脆弱性を 補完하기 위해 副産物 主要團地 28 個所를 指定하여 集中 開發키로 했다.

山林廳에 따르면 林業의 長期投資를 克服하기 위하여 山林副産物등 短期所得 林産物 生産 主要團地 28 個所를 指定하고 地域別로 傳統的 特産品을 生産할 計劃이다.

이를 위한 對策을 보면 短期 所得 林産物 生産에 必要한 許可 業務를 簡素化하여 山主가 쉽게 所得事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主産團地에 加工工場 流通施設을 設置하여 生産性 向上과 價格安定을 기하고 生産된 産物은 山林組合 流通組織 (林産物 直賣場) 이나 百貨店등과 直結하여 販賣하며 指定된 主産團地에 대하여는 資金과 技術을 集中支援하여 地域特産物로 定着시키는 한편 앞으로 繼續 林産物 主産團地를 擴大指定해 나가기로 했다.

• 主産團地 指定 現況

科 目	團 地 數	主 要 團 地
밤	6	부여, 광양, 하동, 산청, 순창, 공주
송이	5	양양, 울진, 봉화, 영덕, 삼척,
표고	7	영동, 공주, 진안, 장흥, 원주, 상주, 거제
석재	2	포천, 익산
산채	3	평창, 무주, 홍천
잣	1	가평
대추	3	양평, 경산, 밀양
호도	1	영동
計	28	

• 融資 支援 計劃

區 分	融 資 金 額
밤, 출하 調節	7,000 百萬元
표고 生産 및 施設	2,197
林産物 貯藏 施設	896
林産物 加工 施設	464
所得 林産物 生産	110
計	10,837

봄철 산불防止對備

— 全 山林關係 公務員 非常勤務 突入 —

山林廳은 乾燥期를 맞아 3.1-5.31 까지를 봄철 산불防止 期間으로 定하고, 산불豫防을 위한 非常勤務에 들어갔다.

山林廳에 따르면 70 % 이상의 산불이 濕度가 낮고 바람이 강한 봄철 乾燥期에 發生하고, 그 대부분이 사람들의 不注意에 의한 失火로서 入山者 失火가 大宗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山林廳에서는 貴重한 山林資源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올 봄에도 3.1-5.31 까지를 봄철산불防止期間으로 設定하고, 산불防止 綜合對策을 樹立, 市, 道 및 營林官署에 示達하는 한편, 全 山林關係 公務員이 非常勤務에 들어갔다.

한편 山林廳에서는 이번 산불防止 綜合對策을 示達하면서, 올봄에는 特히 지난 겨울에 강설 및 강우량이 적어서 어느해 보다도 산불發生危險이 많다고 보고, 國民모두가 산불防止에 적극 協調해 줄것을 當付했다.

— 造林時期를 앞두고 —

새로운 苗木 包藏 保濕材 開發에 成功

山林廳 林業研究院에서는 苗木을 包裝할 때 지금까지 짚가마니 包裝材를 使用하던것을 苗木 乾燥防止效果가 뛰어나고 包裝經營도 적게 드는 새로운 苗木 包裝 保濕材를 開發하는데 成功했다.

나무를 심기위해 苗木을 造林地까지 運搬할 때 苗木 乾燥防止를 위해 짚을 물에 담가 만든 물쭈세미를 保濕材로 使用하여 왔으나 이는 重量이 무겁고 保濕效果가 낮은등 많은 問題點이 있어 왔다.

山林廳 林業研究院에서 吸收性 收支 (아쿠아킵) 를 保濕材로 活用키 위해 研究한 結果 取扱이 용이하고 苗木의 乾燥防止效果가 크며, 包藏經費도 70 %가 節減되고, 重量 또한 40 %를 減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開發한 保濕材의 使用方法是 吸收性 收支 (아쿠아킵) 1 g에 물 5 l (500 배) 比率로 稀釋하여 물 뿌리개로 뿌리 전면에 撒布한 후 二重 비닐로 包裝하면 된다. 이 方法을 利用 苗木 包裝을 하면 苗木의 水分 狀態를 오래 維持할 수 있어 包裝 15日後 造林 활착率이 물쭈세미 보다 17-30 %向上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장 초청 간담회

임시총회열어 협회 명칭 변경키로

“한국 독립가협회”로 하자는 안이 다수

본회는 지난 3월 16일 맘모스호텔에서 산림청장 초청 간담회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번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회장단과 임원일부가 보선됨으로서 상견례를 겸한 산림청장초청 간담회인데 산림청 청차장과 각 국장 전원이 참석하였다. 먼저 회장인사에 이어 산림청장의 산림시책설명에 있는 다음 당면한 현안문제점들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임야거래매매증명제 실시에 대하여 장시간 토론이 전개되었다.

산림청장은 산림시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조림을 많이하여 왔지만 인공조림은 30%밖에 되지 않으며 목재 수요량 900만 m^3 중 85%에 해당하는 770 m^3 을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하고 해외임산자원도 고갈될 날이 머지 않았으므로 하루속히 경제림으로 육성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남양재의 수입은 말레지아나 사라와크로부터 대다수 수입되고 있으나 해외원목시장이 점차 불리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작년에 소련으로부터 9,100 m^3 을 수입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40만 m^3 을 들여올 계획이라면서 세계가 문을 닫기전에 자급율을 빨리 높여 나가야 된다고 하였다.

또 산림의 단기 소득문제를 연구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작년에 밤 8만톤을 생산하여 1,400억원의 소득이 있어 영세산주에게는 다소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되고 앞으로는 약초, 달래등 품목별로 주산단지도 조성하고 저장, 가공공장등 산림조합을 통하여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산지활용화 방안에 대하여 늘어나는 레저 인구를 산촌으로 끌어들여 직매장 설치, 소규모 수렵장등 지역소득과 직결시켜 나가기 위하여 금년에 시범적으로 500ha를 장소 물색중이며 성공하면 사유림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금년말까지 산지 이동 구분조사를 마치고 준 보전임지 130만ha를 산업용지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요즈음 관심사인 투기억제 대책에 대하여 정부의 의지는 아주강한 것으로 어떻게 하든 투기는 막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투기의 84%가 산지였고 지가상승율이 일반 대지보다 앞서고 있으며 임야1평에 20,000원 이상 되는 곳도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산림에 투기가 일어나면 방치산림이 많아짐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렇다고 산주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임야매매증명제 실시에 대하여 일부 비판의 소리가 없지 않으나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매수하고자 하는자는 5년간 산림을 이렇게 경영하겠소 하는 영림계획서를 산림조합을 경유 신청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고 설득하였다. 종합토지세제에 있어서도 산림이 쟁점의 대상이 되어있고 임야도 소유 상한제를 실시하자는 것이 관계부처의 안이지만 산림청은 이렇게까지 압박을 가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의적이고 산주의 권익을 위하여 최대한 관계부처와 투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독립가들은 그동안 수십년간 온갖 각고 끝에 가꾸어온 산림이 제값의 평

가를 받지 못하므로서 오는 불평과 반대 의견을 장시간 개진하였지만 과연 어떻게 결론지어 질것인가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끝낸 협회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현 산림경영자협회 명칭은 산림경영이란 말이 아직 우리사회에 정착되지 못하므로 현실 감각적으로 뚜렷이 강하게 부상할 수 있는 “한국독립가협회”로 명칭 변경하자는 안이 채택되어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하고 끝을 맺었다.

有用 潤葉 樹
造林 各論 ⑥

음 나무 類

임업연구원 김 종 원
연구관

○ 種子採取

種子の 完熟期인 9月下旬~10月上旬에 採取하여 水洗精選한다.

純 量 率	容 積 重 (1ℓ當)	實 重 (1,000粒當)	粒 數		發 芽 率	效 率
			1 ℓ	1 kg		
%	g	g	粒	粒	%	%
85.3	546.61	5.55	142,807	261,259	74.9	63.9

○ 養苗施業

음나무 種子是 二重休眠性으로 2年後 發芽하기 때문에 採種 이듬해 봄에 播種하면 1年後 發芽한다. 그러므로 採種精選直後 排水가 잘되는 곳에 露天埋藏하였다가 이듬해 가을 또는 2년째 봄에 播種한다.

播種床을 고르게 다지고 m^2 當 66g (0.12ℓ)를 撒播한 다음 흙을 체로 쳐서 3~4mm 정도 덮고 짚을 한겹두께로 얇게 깔아준다.

가을에 播種할 때는 짚위에 落葉을 덮어주어 霜柱被害를 豫防하고 이듬해 봄에 落葉만 除去한다.

1 m^2 當 200本을 남기고 1年 据置하여 2年生을 掘取, 1 m^2 當 25本을 移植하여 3年生 (2-1 苗)으로 山出한다.

○ 造 林

適地: 全國의 肥沃適潤한 土壤으로서 土深이 깊은 곳이 適地이며, 비교적 乾燥한 곳 또는 多濕地에도 잘 適應한다.

樹形이 아름답고 風害에 強함으로 防風林, 防火林 및 造景樹로 植栽가 可能하다.
 ○ 植栽: 一般的으로 ha當 3,000 本을 植栽하나, 어릴때는 耐陰力이 있으므로 潤葉樹天然林
 域에 群狀으로 地拵하고 300~600 本을 植栽하여 天然林과 混育林으로 撫育할수
 있는 樹種이다.

○ 育 林

- 造林後 3年間全세로 每年2回씩 下刈를 實施한다.
- 下刈가 끝나면 3~5年後 除伐 및 蔓切을 實施한다.
- 굵은 가지가 생기고 줄기가 雙幹으로 되기 쉬우므로 결순따주기를 수시로 해주어야 한다.
- 間伐은 15年生 内外에서 始作하고 울폐도에 따라 5~10年 間隔으로 繼續한다.
- 박쥐나방 被害가 多少있으나 下刈作業을 철저히 하면 豫防할 수 있다.

山林事業有功者褒賞

政府는 제 44 회 식목일에 즈음하여 그동안 山林事業에 특별히 功이 컸던 篤林家를 選拔하여 오
 는 4月4日 山林廳 會議室에서 施賞할 計劃인데 篤林家 4名은 모두 우리協會 會員으로서 그 名
 單은 다음과 같다.

地 域	區 分	姓 名	褒 賞 勳 格
慶 北	優 秀 篤 林 家	李 源 達	鐵 塔 產 業 勳 章
京 畿	自 營 篤 林 家	崔 承 秀	產 業 褒 章
忠 南	優 秀 篤 林 家	李 建 勳	大 統 領 表 彰
全 南	模 範 篤 林 家	朴 炯 卓	國 務 總 理 表 彰
京 畿	南 楊 州 郡	芝 屯 里 山 林 契	國 務 總 理 表 彰

<協會費 納入案內>

- 농협중앙회 : 001-01-025926
- 計座番號 ○ 국민은행 : 027-01-0037-647
- 우 체 국 : 011809-0014780-12

★ 입금하실때 송금자 성함을 꼭 명기하여 주세요.